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6호 [루계 제23423호] 주제100 (2011)년 4월 16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밟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에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 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공연을 보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지닌 관람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네원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옹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앱례를 보내시며 태양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당파 군대의 책임일 군들인 김정은동지, 리영호동지, 김영춘동지, 최태복동지, 홍석형동지,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정각동지, 김양건동지,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문경덕동지, 주규창동지, 우동축동지, 김창섭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병들,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혼성 4중창과 합창 《행복의 노래》, 시랑송 《수령님과 4월 15일》, 너성독창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플루트와 너성중창 《당은 장군님의 품》, 기타병창과 너성독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촌극 《인상문제》, 바스기타 독주 《통일렬차 달린다》, 시이야기

《우리의 생명선》, 합창 《남산의 푸른 소나무》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백두령장의 손길아래 수령옹위의 제일 결사대,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훨승불패의 위력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따

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바쳐 사수할 우리 군대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혁명적열정과 전투

적기성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군

인들의 심장마다에 당파 수령, 조국파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

명을 흥롭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예술인

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격동적인 공연을 보면서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보았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하여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기상이 도도히 굽이치는 전투적

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

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 열의는 비상히 높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어버이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원을 풋파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전문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각하

존경하는 김정일각하  
나는 민족적명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99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로씨야에서는 깊은 력사적뿌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오신 김일성주석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쌍방이 쌍무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이룩한 호상리해가 구체적인 사업에 구현됨으로써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귀국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데. 메드베제브

2011년 4월 15일

모스크바, 크레믈린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책임일 군들과 인민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로동 적위군 기들이 세워져 있었으 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텁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과 함께 공군 및 로동적위군에 위영한 대가 정렬해 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려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텁상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로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텁상에는 조선로동당기와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명령에 휩싸여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 태양의 역사는 영원히 흐르리

## 다함없는 경모의 정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이를 아침부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끌끌이 설레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떠나고 싶어 주체의 최고성지로 달리는 전사, 제자들의 철철한 마음이 어려서인가 금수산기념궁전광장 물대문이 활짝 열리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어서 오라 부르시는 듯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우리를 수룩한 존함그대로 위대한 태양이시구나 하는 숭엄한 감정이 저절로 솟구쳐올라 온 광장이 뜨거운 격정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참된 삶을 누려온 끝없는 영광과 행복,

##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태양절날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을 찾았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밝아온 뜻깊은 4월의 불명절과 더불어 위대한 태양의 역사가 어떻게 인을 만나보았다.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었기에 지난날 당국과의 차식으로 태여난 저도 성, 중앙기판의 책임임으로 될수 있습니다.」

머리에 흰서리를 무겁게 얹은 팔순에 가까운 로인으로 으나 절정에 젖은 그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수단을 겪는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조국과 혁명 앞에 거대한 혁사적 공적을 쌓으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

## 뜨겁게 되새겨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이 불날이 있어 김일성 조선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한 전변의 서사시가 새겨졌고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에서는 얼마나 운명적인 전환이 일어났던가.

강도 일제를 한손에 거미쥐고 위락화락하시며 만주팡아를 주름잡으시던 백두산청년장군, 베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계 『최강』을 뽐내던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지켜주신 민족의 은인, 이민위천을 지른으로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행복의 러원을 일떠세우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생을 다 겪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오늘과 같은

행복과 영광을 안겨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평창의 곳곳에서 뜨겁게 굽이치고 있었다.

세기는 바뀌었어도 어버이 수령님께서 그토록 위대한 태양의 역사가 성스럽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

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해마다 태양절이 오면 제일 먼저 찾고 싶은 곳이 금수산기념궁전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랑구역 통일거리 1동 531민반에서 사는 황만식 동무의 말이었다. 첫눈에도 단란하고 행복해보이는 그의 가정은 말그대로

위대한 태양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만연해 날수 있는 사회의 체계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인 4월 15일의 갈피갈피를 빠져보지도 않아도 인민을 위한 숭고한 현신의 한평생을 수놓으신 우리 수령님의 자족자우사연길은 이 불날에 얼마나 뜨겁게 새겨져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해방후 처음으로 맞으시는 탄생일에도 나라의 예술발전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고 춘업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어느해 4월 15일에는 군인들과 함께 계시며 혁명적인

아버지의 품속에서 자식들모두를 공부시키고 나와의 어

엿한 역군으로 키운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정녕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가족과 함께 새겨져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리고 4월의 이 불명절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수놓아져있는 것인가.

하기에 대동강구역 청류 3동 571민반에서 사는 홍설플, 리용녀동무들을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을 찾으셨습니다.

정녕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가족과 함께 새겨져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리고 4월의 이 불명절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수놓아져있는 것인가.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지난 4월 1일부 당보에 모셔진 어린이들속에 계시며 환희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뜨겁게

인거와 격정을 끌어올렸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후대

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며 거기에서

자신의 기쁨과 락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

시간이 흘러 한평생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즐음하여

##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각지에서 주체 100년의 태양절 뜻 깊게 기념

위대한 태양의 역사가 흘러 한세기를 맞이하는 주체 100년의 4월절!

뜻깊은 만경대를 방문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수도 평양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친만군민의 열화같은 경모의 정으로 품어져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피니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혁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각급 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4월 15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각지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꽂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는 인민들은 절세위인의 품에 안겨 행복을

누려온 나날들이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고향집의 사적들을 돌아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와 만경대 일가문들의 업적을 되새기었다.

불멸의 꽃축전사에 또 한들 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고향집의 사적들을 돌아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와 만경대 일가문들의 업적을 되새기었다.

민민의 뜨거운 지성이 어떤 환호를 끌어다니를 보며 참관자들은 위인청송의 꽃축전과 더불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혁명적을 즐기자 흐르고 있음을 절감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각지에서는 태양절 기념 예술공연무대들이 펼쳐

졌다. 자강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 각 도의 예술인들은 너

성 4 중창 「만경대의 노래」, 너성독창 「영원한 그 미소」, 너성독창파 합창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한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아민위침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온갖 보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을 높이 칭송한 공연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지지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벌어졌다.

유류관, 청류관, 신홍관, 경암각을 비롯한 금양봉사자

에서는 근로자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평생의 하루가 저물자 수도 평양과 원산 등지의 거리들에 아름다운 불빛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이 황홀하게 불장식되어 선경을 펼친 희한한 밤풍경을 보며 인민들은 이 땅에 수령영생 되었다.

당장건기념당, 4. 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광장 등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태양절 노래하세」의 노래소리가 떨려 퍼지자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9돐기념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5일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최고회장들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 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계통적인 시기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한 크나큰 기쁨을 암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홍성거렸다.

당장건기념당, 4. 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광장 등 수도의 무도회장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주체 100년의 태양절을 뜻 깊게 보내는 온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끌어내리며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도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평양 체육관 광장에서 -

###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 종합공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99돐기념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15일 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통해동지와 리용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청년동맹 일군들,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서곡 『4월 명절 태양절』로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혁명의 요람 만경대로 달리는

### 진행

피아노독주 『명신학교교가』, 무용 『순복주총』, 소합창 『나의 딱친구』, 재담 『경쟁바람』 등이 올랐다.

관람자들은 손풍금중주 불후의 고전적명작 『당간강이』, 고전적명작 『장군강이』, 너독창 『아버지의 전선길』을 비롯한 종목들을

통하여 위대한 백두령 장의 선군령도가 있어 주체조선의 새 세대들이 마음껏 배우며 재능을 활짝 풀고 있음을 깊이 절감하였다.

종곡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태양조선의 앞날을 떠나고 나갈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준비해나가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

### 진행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에 즐음하여 주체 100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위한 연회가 15일에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제일본조선인대표단, 제증조선인총련합회 대표단, 제미동포전국련합회 대표단, 제카나다조선인련합회 대표단이

연회에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강지영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전보적인 유형의 영원한 태양이 신경

# 자주, 평화, 친선의 노래 높이 울리는 성대한 예술축전

제 27 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 하문 소백로 민속무용단의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흠토심과 조중친선의 정을 담은 여러 종족의 무용작품들로 축전무대를 홍통히 장식하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럼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 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대양이십니다.』

홍위나는 음악에 맞추어 특색 있는 민속춤가락을 펼쳐여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고 관중의 절찬을 받고 있는 무용단의 춤곡들 중에는 독무『장가락』도 있다. 독무에 춤연하여 특색 있는 민속무용을 동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춤연으로 『9·30』무용단의 북전성가 무곡 장교원 하문음녀성이다. 무용가로서는 황훈기나 같은 나아이에 어떻게 그렇듯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춤가락을 펼칠 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대답해 대신 한상의 사진을 먼저 내보낸 것이었다.

매혹

도이 월란드 『크로이센 콘서트』 협회 대주가일행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왔다. 국제콩쿠르자들로서 손꼽히는 연주가들이다. 남성철로 연주하게 된 자기의 이름을 단 콜들이 있다는 남다른 자부도 있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공연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려온 이들이 조선 예술에서 받은 충성을 참으로 큰것이었다. 이들은 완전히 매혹되었다.

첼로연주가는 축전개막식 날에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본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의 예술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좋다. 홀륭하다. 상상을 초월한다.』

공연을 보니 이번 축전의 수준을 알만하다. 참으로 매혹적이다.

황홀한 예술을 통해 조선을 알았다.』

소원

어디 가나 울려 나오는 아름다운 선율, 깨끗하고 풍기고 맑은 평양의 어디에 가나 들을 수 있는 음악소리.

이것은 유럽에 숨의 중심지의 하나로 되여온 원에서 온 오스트리아 원목판 중주단 성원들이 평양지하철도를 비롯한 평양의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받은 깊은 인상이다.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조선사람들의 고상한 문명세계를 알게 될수록 조선

## 흥모와 친선의 정 춤가락에 담아

중국 하문 소백로 민속무용단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1993년 8월 중국에 출단의 위인에 대한 흠토심과 감정이 아름다운 춤가락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환분을 수령으로 보였던가에 대해 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은 오늘도 우리 인민과 중국인민들, 아니 전세계 진보적인 유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며 수령님의 혁사를 끝없이 흐른다는 신념을 다시금 간직하게 된다.

예술인들

마련해주시었다고 하면서 이번 춤을 준비하는 나날에 무용가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한동안 힘 수를 놓는 심정으로 조중친선의 글발을 세우기 위한 경쟁을 미워하는 춤가락에 맞아 무용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중국예술인들의 진정에 넘친

그의 얼굴에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흠토심과 감정이 아름다운 춤가락을 통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었다.

기념사진을 우러르는 우리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는가?

그날 중국에 출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예우들을 만나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꽃다발을 헌물로 무용가에게 어린 배우가 수고한다고, 앞으로 조중친선강화에 이바지 바란다는 믿음어린 말씀을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다.

영광의 그날을 감회깊이 들여보며 하문음무용가는 자신과 가정의 귀중한 보물파도 같은 절세의 위인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기념사진을 거의 2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복건성의 습한 기후조건에서도 정기적으리에 찬하위에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사진에 짚은 사연을 전하는

우리 인민들은 기쁘게 해주고 있다.

종이를 오려 가는 가들의 창작생활을 아름다운 무용으로 펼쳐보이면서 이들은 『조중친선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라는 글발을 세우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국장에서 우리와 만난 무용단 부단장을 조중친선의 혁사 적뿌리를 두고 춤을 춰야 한다는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날을 감회깊이 헌물로 춤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춤가락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첫 날공연에서부터 판중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여기에서 보관하여 있다가, 이번 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오면서 자기의 력행집속이 아니라 품속에 간직하고 왔다고 전정을 허놓는 것이었다.

# 만민의 절절한 그리움 속에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

## 세계자주화위업과 더불어 불멸할 업적

진보적인 유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와 열화같은 흠토모의 마음을 암고 주체 100년으로 빛나는 유헤의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인류의 타월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형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 민들에게 힘과 신실을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봉별의 공헌을 하시았습니다.』

지난 새기 말엽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사회주의봉파사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정당들과 인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기회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평화를 고쳤다. 요란스레 떠들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증상과 반체혁명력방에 대한 반동적 공세를 전개하였다.

사회주의의 위엄이 일대 시련을 겪던 그 시기 세계의 수많은 전보적 정치인, 사회활동가들이 망망한 바다에서 항로를 밟혀온 바다에서 항로를 밟고 높이 솟아 빛을 뿐인 조선으로 끌임없이 찾아왔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간직한 사람들 가운데는 벨지 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있었다. 주체 83 (1994) 년 6월 3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벨지 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고 그에게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사람들이 『국제현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감히 유통하지 않고 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미국사람들한테 엄수임을 당하면서도 참기만 하고 있으며 겁이 나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파감히 벌리지 못하고 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과 벨지 끄로동당은 다같이 작은 당들이지만 자주성을 지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마흔은 나를 들여 더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과 벨지 끄로동당은 자주성을 지키고 있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재건운동뿐 아니라 블록불가당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세 사회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주체 80 (1991) 년 6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탄자니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귀중한 가르침을 받아안은 그는 자주의 길을 따라 억세게 쌓워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주체 82 (1993) 년 2월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한 나라면 대단히 그 나라를 하라는데 하다가 결국은 망한데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따뜻한 시간을 내시면서 그들을 따뜻한 시간을 내시면서 그들을 따뜻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환히 밝혀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 경제적자립을 하지 못하면 또

다시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의

을 가미해 걸려들수 있다고,

우리 나라가 좀 어려워도 새로

돌립한 나라이들이 자립적민족경

제를 건설해나가도록 힘껏 도

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

심없는 원조와 지원을 주도록

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나라인에게 주자주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끈 위인들에게

대한 이아기가 적지 않게 기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

에게는 원조와 지원을 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재건운동뿐 아니라 블

록불가당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세 사회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다당제』

를 실시하면서 수령님에게

마음을 헌신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뿐만 아니라

아

혁

명

당

대

표

단

을

접

견

해

주

시

되

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집결하여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

한

나

라

를

가

지